

사회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2명 무단횡단·운전미숙 노인

올 29명 사망...위기대처 능력 떨어져 안전교육 절실

올 들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두 명이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과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노인들의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4명으

로 이 가운데 29명이 만 60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65세 이상 사망자는 21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20세 미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무단횡단, 갓길보행 등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17명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전거 주행중과 승차중 사망은 각각 2명에 그쳤다.

실제 지난 16일 새벽 5시23분 광주 시 서구 운천동 운천저수지 옆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여·73)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최모(여·32)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김씨는 새벽에 운동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18일 오전 8시41분에 도 남구 진월동 한 병원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마모(44)씨가 운전하던 7t 지게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정모(여·86)씨를 들이받아 정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남구 봉선동 봉선시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덩크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노인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07~2011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만3596건으로 지난 2007년 834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교통사고 대비 노인 사망자 수도 100명당 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100명당 2.5명)를 크게 웃돌았다.

경찰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젊은층에 비해 불면 등을 이유로 육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이용을 꺼리는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모두 7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이달에만 모두 11명이 사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22일 광주문예회관에서 두차례 열린 남진 콘서트는 관객과 가수가 하나된 열광의 현상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나된 무대

남진에 빠진 광주...3000여 관객 열광

'영원한 국민 오빠' 남진콘서트 2회 모두 만석

지난 22일 '영원한 국민 오빠' 남진 콘서트가 열린 광주문예회관은 열기로 가득했다. 객석을 가득 채운 3000여명의 관객들은 큰 목소리로 히트곡을 따라부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아직도 못다한 노래'라는 타이틀로 진행한 이번 콘서트 현장은 관객들과 가수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무대였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공연업계가 위축되면서 문예회관 대극장이 만석을 기록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두차례 공연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보는 풍경이었다.

첫곡 '동지'로 문을 연 남진은 '가슴 아프게', '넌과 함께'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미워도 다시 한번' 등 줄줄이 이어지는 히트곡으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엘튼존과 엘

비스프레슬리 등의 팝 넘버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이고, 나이를 무색케 하는 몸놀림과 입담 등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며 분위기를 이끈 그는 진정 '콘서트의 달인'이었다.

피날레 곡으로 '빈잔'을 부른 그는 앙코르 곡으로 '나야 나'를 선사한 후 환호와 사랑을 보내준 고향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대를 물러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임금협상 난항 결렬땀 오늘부터 총파업 돌입

광주 시내버스노조와 사측이 임금 인상 협상 난항으로 24일 새벽까지 파업협상을 벌였다.

23일 광주시와 광주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현재 애초 7%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노조가 인상 폭을 5.6%로 낮췄고, 2.5% 임금인상을 주장하던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86% 인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노조는 현재 월 8만원의 무사고수당을 11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10

5·18희생자 치료 트라우마센터 내달 중순 문연다

국가 폭력 및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의 정신적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Trauma)센터가 오는 10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

23일 광주 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10월 중순께 광주도시공사 13층에 330㎡ 규모로 개소한다. 트라우마센터는 5·18 당시의 피해자·유족 뿐 아니라 그의 국가공권력 피해자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관리하고 치료할 방침이다.

센터 측은 육체 재활뿐 아니라 개인·집단·가족 상담과 예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치료를 표방한다고 밝혔다.

트라우마센터에서는 광주 시민군 출신으로 알려진 강용주 원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자, 정신보건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0명이 피해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센터장으로 선임된 강 원장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앞장서 과거사 청산에 한 발짝 다가서고 나아가 국가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2분 해질 18시 26분 달맞이 14시 35분 달정 00시 11분

따뜻한 가을 날씨 일교차 크니, 건강 관리에 유의 해라.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5/26°C
목포	맑음	16/25°C
여수	맑음	18/25°C
나주	맑음	14/27°C
완도	맑음	16/26°C
구례	맑음	14/27°C
강진	맑음	14/26°C
해남	맑음	13/26°C
장흥	맑음	13/26°C
순천	맑음	13/27°C
영광	맑음	14/26°C
진도	맑음	14/25°C
전주	맑음	14/27°C
군산	맑음	15/25°C
남원	맑음	12/27°C
홍산도	맑음	18/24°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지역	중양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m	0.5~1.0m	0.5~1.0m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0.5~1.5m	0.5~1.0m	0.5~1.0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7	16/27	17/26	17/25	16/24	15/24

대표자 바뀐 '사무장병원' 2곳 부당이익금 광산구 30억 징수 '골머리'

광주시 광산구가 2곳의 요양병원에 부과된 30여억원대의 부당이익금 징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광산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관내 2곳의 요양병원에 30억1600여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징수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다 적발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산구보건소는 해당 2곳 병원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대표자가 바뀌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법 23조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대표에게 징수하도록 돼 있어 현재 바뀐 대표에게는 전혀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해당 2곳의 병원이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관련 부당이익금을 병원 측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산구보건소는 20억 2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할 문모(55)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순창의 모 병원에 근무중인 것이 확인 돼 조만간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씨가 거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징수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9600여만원을 징수해야 할 조모(52)씨도 적발 당시의 같은 병원의 의사로 근무는 하고 있으나 대표자를 바꾼 상태로 재정 능력이 없어서 4년간 분할 납부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8월 제출 받은 상태다.

한편 이 같이 '비의료인 개설 의료 기관'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관련 법률이 유명무실한 만큼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일러, 대형, 영진,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